

3월 4일(월) / 수 13-16장

▶**내용요약:**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고 늙었으나 정복해야 할 땅은 아직 남아 있었다. 그럼에도 가나안 땅 정복은 일단락 되어 서 요단강 동쪽 지역의 땅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 13장에 기록되어 있다. 14장부터 요단강 서쪽 지역의 땅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 나타낸다.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았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한 땅에 흠어져 거주하는 사람들이었다. 15장부터 구체적으로 요단강 서쪽 지역의 땅이 어느 족속에게 분배되었는지 나타나는데, 15장에서는 유다 지파, 16장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기록되어 있다.

▶**질문:**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산지로 아낀 자손이 살고 있으며, 성읍은 크고 견고한 그 땅을 달라고 한 사람은 누구인가?(삿 14장)

▶**생각하기:** 하나님이 주신 땅 이상을 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취해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무 전쟁이나 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만을 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귀하게 여기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3월 7일(목) / 삿 1-3장

▶**내용요약:**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지옥 같은 곳이 될 수도 있었다. 그곳에서 다스리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처럼 이방 민족들에게 굴종하며 살아야 할 수도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일어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고난 가운데서 건지셨다. 사사기 3장에서는 사사 옷니엘, 에훗, 삼갈 등의 활약이 기록되어 있다.

▶**질문:**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모압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만든 사사는 누구인가?(삿 3장)

▶**생각하기:** 사람들은 전쟁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매달린다. 그때는 스스로의 힘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된다. 전쟁은 또한 기도의 시기이기에 극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 전쟁의 시기를 거치며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 그 일을 소홀히 하면 다음 세대가 패역해진다.

3월 10일(주일) / 삿 10-12장

▶**내용요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유롭게 생활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는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붙들려 살았고, 이방인들의 압제를 당하는 굴종의 삶을 살았다. 사사 입다 때에는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하였다.

사사 입다는 길르앗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그리고 길르앗의 본처의 아들들에게 쫓겨나 돌이라는 땅에서 살던 사람이다.

3월 5일(화) / 수 17-20장

▶**내용요약:** 17장에서는 서쪽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 기록되어 있다. 땅은 각 족속이 가지고 싶은 대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주어졌다. 땅은 남자 자손들에게 상속되었지만, 남자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여자 자손들에게도 상속되었다.

18장부터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일곱 족속—베냐민, 시므온, 납달리, 아셀, 스블론, 잇사갈, 단—에게 어떤 땅이 분배되었는지 나온다. 18장에서는 베냐민, 19장에서는 시므온, 스블론, 잇사갈, 아셀, 납달리, 단 족속에게 어떤 땅이 분배되었는지 기록되어 있다. 20장에서는 도피성 제도가 언급되고 있다.

▶**질문:**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삿 20장)

▶**생각하기:** 이스라엘 각 족속에게 분배된 땅은 그 하나하나가 소중한 땅이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하심을 담고 있는 땅이었다. 그러므로 그 땅의 이름들은 하나하나 소중하게 기록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곳을 소중히 여기며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한다.

3월 8일(금) / 삿 4-6장

▶**내용요약:** 여자 선지자 드보라는 바락이라는 장군에게 가나안 군대와 싸우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바락은 가나안 군대와 싸워 승리하였다.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는 야엘이라는 여인의 장막에 들어갔다가 그 여인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이 전투에서 여인들의 활약이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여선지자 드보라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승리의 노래를 만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스라엘에 예배와 찬양이 회복되게 하였다. 6장에서는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와 수탈에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일으키시고 준비하시는 과정이 나타난다.

▶**질문:** 시스라는 이 왕의 군대 장관이었다. 가나안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였던 왕의 이름은 무엇인가?(삿 4장)

▶**생각하기:**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던,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던 기드온이 어떻게 힘센 용사가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능력은 관계에서 나온다.

그는 굉장한 용사였으므로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오자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에게 와서 군대 지휘관이 되어달라고 요청한다.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질문:** 입다가 암몬과 전쟁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내용은 무엇인가?(삿 11장)

▶**생각하기:** 하나님은 훌륭한 가문에 좋은 이력을 가진 사람만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다.

3월 6일(수) / 수 21-24장

▶**내용요약:** 레위 자손들에게 땅이 상속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거주할 성읍과 가축을 먹일 목장은 주어졌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전역에서 48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을 받았다.

여호수아는 생을 마감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말씀을 지키며 살 것을 당부한다. 또한 과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미래를 기대하게 하면서 다시 한 번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을 작정하게 하였다.

▶**질문:** 레위 자손들에게는 총 몇 개의 성읍이 거주지로 주어졌는가?(삿 21장)

▶**생각하기:**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기 앞서서 해야 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다.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한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기초하여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것이 필요하다.

3월 9일(토) / 삿 7-9장

▶**내용요약:** 기드온과 삼백 용사는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다. 전쟁의 승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적은 인원을 가지고도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서 자녀가 일흔 명이었다. 세겔의 첩과의 사이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 또한 있었다. 아비멜렉은 세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기드온의 일흔 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 요담만을 제거하지 못하고, 다른 아들들을 다 죽였다. 세겔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다. 후일 아비멜렉과 세겔 사람들의 관계가 나빠져서 서로 싸우며 몰락하게 되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기드온의 아들 일흔 명에게 행한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질문:** 기드온의 막내아들로서 아비멜렉의 살육을 피해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인가?(삿 9장)

▶**생각하기:** 행해진 악행에 대해서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다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을 서원을 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기에 그분을 아는 일에 충실하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면 되는 것이다.